한전, 나주 빛가람도시시대…대이동 현장 가보니

11t 트럭 16대 이삿짐 우르르…첫 출근 준비

한국전력이 서울 삼성동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로 이삿짐을 옮기는 첫날인 지난 7일 한전 본사 사옥에서 직원과 인부들이 트럭에서 사무실로 책상을 나르고 있다. /나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달중 5t 트럭 800대 분량 이사…비용만 50억원

한전 KPS·KDN 1426명, 다음달 5일까지 완료

"생필품 하나 사는데도 나주시로 나가야" 불편 호소

"서울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주변에 변변한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함은 오래갈 듯 합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 전력로의 한국전력 본사사옥. 후문과 안내데스크 앞쪽엔 책상과 막바지 내부공사 자재가 잔뜩 쌓여 있었다. 잇따라 들어서는 11t 트럭의 포장이 풀리자, 직원 이름표가 붙은 책상이 한가득 쏟아져 나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선발대로 도착한 한전 직원들은 업무보따리를 열었다.

서울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적인 한전 본사 이전이 시작된 첫날. 11t 트럭 16대 분량의 이삿짐이 사옥 후문에 쌓였다. 이달 중 빛가람도시로 내려오는 짐만 5t 트럭 800여대 분량인 4000t. 이사에만 50억원이 소요된다.

이날 빛가람도시로 짐을 옮긴 부서는 원전수출본부와 해외사업본부로 인원만 267명이다. 이들은 10일부터 사옥으로 정상 출근한다.

앞서 3일 선발대로 도착한 자산관리처, 업무지원처 등 3개 부서 262명을 포함하면 벌써 500여명이 혁신도시로 이주했다.

함께 이전하는 한전KPS 직원 482명은 10일부터 28일까지, 한전KDN 944명은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삿짐을 푼다.

3년 전부터 혁신도시로 내려와 신사옥 업무를 담당한 김동근 부장은 "온통 배밭이었던 곳에 2000억원짜리 건물이 올라서고, 시설이 갖춰지니 감개무량하다"이라며 "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2차 이삿짐을 푸는 14~16일엔 신성장본부와 전력계통본부 소속 330명이 내려온다. 이달 말까지 매주 주말 이사하면 1550여명의 본사 직원이 12월1일부터 '빛가람 시대'를 열게 된다.

서울 토박이인 정형우(신사옥건설소)씨는 "아직 낯선 곳이지만 서울생활보다 여유있을 것 같아 남는 시간은 자기계발에 쏟고 싶다"며 "거주 인구가 많아지면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본사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도우미를 자처했다. 미향(味鄕) 남도를 소개하는 '맛집 책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주 직원들에게 배부하는가 하면, 지역 생활 소개를 담은 동영상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여가선용을 위한 동아리 활동 안내와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생활인프라와 대중교통은 혁신도시 안착을 위한 급선무로 지적됐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던 지자체가 정작 이전을 시작하니 관심을 뚝 끊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이주 직원은 "생필품 하나 사는데도, 나주시로 나가야 할 만큼 불편하고, 버스마저 없다"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생활마저 힘들다면 되겠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직원은 "이전에 즈음해 지원이나 계획을 묻는 지자체 문의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먼저 다가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유치원, 초·중·고교 유기농 급식"

이낙연 지사 시정연설 "20개 작목 생산비 절감모델 농가 보급"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 쌀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급식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친환경 농업은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신뢰의 제고에 중점을 둬 내실을 기하겠다"며 "실천의지가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을 확대·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외 경쟁력을 갖춘 쌀, 마늘, 양파 등 20여개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모델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겠다"며 "시설원예와 축산업 분야에서도 현장의 생산비 절감혁신 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 경영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과 조직을 재정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남도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문화재 복원·정비를 확대하고 사찰과 서원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언급했다.

'가고 싶은 섬'과 관련해서는 "섬의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식생, 경관, 전통문화 등 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섬을 가꾸겠다"고 말했다.

도민 도정평가제, 주민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등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출향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유치,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 "복지서비스 확대와 의무적 경비 증가로 현안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도 시급한 주요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달픈' 한국 직장인

유급휴가일 8.6일…주요 24개국 중 최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연간 사용한 유급휴가일수가 전세계 주요 24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세계 24개국 직장인 7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의 연간 평균 유급휴가일수는 8.6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나라는 미국(503명), 인도(500명), 영국(408명), 이탈리아(406명), 프랑스(402명), 스페인(401명), 호주(400명), 멕시코(400명), 브라질(400명), 한국(304명), 일본(302명) 등이다.

직장인들이 유급휴가를 가장 많이 간 나라는 프랑스(30.7일)였고, 덴마크(28.6일), 독일(27.7일), 스페인(27.4일), 아랍에미리트(26.2일)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직장인의 사용 유급휴가일수가 적은 나라는 말레이시아 10.7일, 태국 12.1일, 멕시코 13.6일, 미국 13.8일 등이었다. /연합뉴스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에 노진영씨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 제2대 이사장에 노진영(72)씨를 선임했다.

재단은 최근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현재 전남복지재단 초대 이사로 활동중인 노씨가 경력과 이력으로 보아 임원들 중 이사장에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 이사장은 "전남복지재단의 기반 정착과 전남지역 복지발전을 위해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사 중 호선해 도지사가 임명하며 비상근 무보수 봉사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노 이사장은 법학박사로 목포대와 초당대 총장,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 전남도 제2건국추진위원장, 2012세계박람회 지방유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대 석좌교수, 전남도승마협회장,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本社人事

▲丁圭燮 전북취재본부 남원주재 부장대우

▲朴先天 동부취재본부 순천주재 기자

〈11월 10일자〉

'광주비엔날레' 1면서 계속

◇지역사회와의 갈등 여전=지난 6일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주비엔날레 창조적 혁신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 같은 이유는 재단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있어서다. 재단은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당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변화'와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재단과 지역 사회의 온도차도 문제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일부 작가는 "너무 막연한 이야기다"며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만을 늘어놓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 사회의 '개혁 요구'는 곧 지역과의 소통이다. 정작 지역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없이 진행된 공청회와 이를 토대로 향후 만들어질 혁신안은 결국 본질을 살피지 못한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혈압이 있는 발기부전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고혈압 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의 남성 환자
- 한 가지 고혈압 치료제로 혈압을 조절 중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
- 최소 3개월 이상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

대상자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2. 참여기간
-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28주간 총 7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면 임상시험용의약품 (고혈압 치료제 및 발기부전 치료제 포함)이 제공되며, 정기적인 검진과 임상시험과 관련된 각종 혈액 검사, 뇨검사, 심전도 검사 및 혈압계, 소정의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실시기관
전남대학교병원

문의처 02-589-1664

2015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전 형 일		2014. 12. 3.(수) 10 : 00~
합 격 자 발 표		2014. 12. 18.(목) 11 : 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 : 전자컴퓨터공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 //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